



2대리구 신암성당 | 그림_ 서원만 베르나르도

서원만 베르나르도
2022

대구주보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하느님 말씀을 따라
연중 제6주일 2022. 02. 13. (다해) 제2308호

제1독서 예레 17,5-8 **화답송** ◎ 행복하여라,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 제2독서 1코린 15,12,16-20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보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 알렐루야. **복음** 루카 6,17,20-26 **영성체송** 그들은 실컷 먹고 배불렀네. 주님이 그들의 바람을 채워 주셨네. 그들의 바람을 저버리지 않으셨네.

❖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며 하나 된 마음으로 매일 밤 9시 주모경을 바칩시다!

신앙인의 소확행

옥계본당 주임 | 이기환 사무엘 신부



‘소확행’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일본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수필집 『랑겔한스섬의 오후』에 등장하는 말인데요, 소확행은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뜻합니다. 갓 구운 빵을 손으로 찢어 먹는 것, 서랍 안에 반듯하게 접어 돌돌 만 속옷이 잔뜩 쌓여 있는 것, 새로 산 정결한 면 냄새가 풍기는 하얀 셔츠를 머리에서부터 뒤집어 쓸 때의 기분을 ‘소확행’이라고 했습니다.

신앙인의 소확행은 무엇일까요?

장소가 어디든지 언제든지 하느님께로 향하는 것, 목주를 꺼내서 성모님과 함께 목주기도를 바치며 평화 속에 머무는 것, 시간이 허락한다면 조용한 성당에서 성체조배를 하는 것, 성경 필사를 하는 것, 어디를 가면서 좋아하는 성가를 흥얼거리는 것, 등등. 하느님 안에 머무르면 얼마나 행복한지요.

“예수님을 가진 자가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우리는 오늘 복음에서 루카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행복선언과 불행선언을 들었습니다. 오늘 복음을 묵상하며 갈매못에서 순교하신 성 다블뤼 안토니오 주교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을 가진 자가 모든 것을 가진 자다.”라는 말씀이 더욱 가슴에 와닿습니다.

행복을 다른 데서 찾을 것이 아니라,
그 행복을 주시는 하느님께 돌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얻게 됩니다.

행복하고 싶습니까? 그럼 행복의 근원이신 하느님 안에 머무릅시다. **✠**

코로나에도 멈출 수 없었던 ‘요셉의 집’

교구 사회복지국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영하 7도 한파의 이른 아침, 무료급식소 요셉의 집 창문 틈으로 따뜻한 불빛이 새어 나온다. ‘탁탁탁’ 봉사자들이 도마 위를 두드리며 칼소리가 경쾌하다. 요셉의 집은 1989년부터 수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주 5회 300여 명의 노숙인에게 밥 한 끼를 대접해 오고 있다. 32년 동안 위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의 급식소가 운영을 중단했을 때, 요셉의 집도 봉사자와 노숙인들이 감염될 수 있는 위험이 있었다.

하지만 운영이 중단된 급식소의 노숙인까지 모여드는 상황에서 하루 한 끼를 먹기 위해 찾아오는 이들을 생각하면 도저히 급식소 문을 닫을 수가 없었다고 한다.

요셉의 집에는 22년째 급식 조리를 해오고 있는 자원봉사자가 있다.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지만 이곳에서는 레지나 자매로 불린다. 레지나 씨는 매일 식사하러 오던 노숙인이 한동안 보이지 않으면 걱정된다고 한다. 또 어느 길거리에서 갑작스레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을까봐 두려워서이다. 몇 년 전 얼굴을 익혔던 여성 한 분이 남성 노숙인들과의 시비에 휘말려 사망했을 때 너무나 안타까웠다고 한다. 그때부터 거리에서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숨어 살아야 하는 여성 노숙인이 찾아오면 더욱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게 되었다고 한다.

추운 겨울 요셉의 집에서 대접한 따뜻한 밥과 국 한 끼는 노숙인들이 하루의 추위와 고단함을 이겨낼 힘이 되었다. 요즘은 단체급식 대신 봉사자들이 아침에 장만한 밥과 반찬을 도시락으로 포장해서 전달하고 있다. 어쩔 수 없이 도시락으로 제공하다 보니 마땅히 먹을 장소가 없어 원룸 건물 주차장이나 후미진 골목에서 찬 바람을 맞아가며 밥을 먹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이웃 간의 거리는 멀어지고, 기부 심리도 얼어붙고 있다. 오직 후원과 봉사만으로 운영되는 요셉의 집 상황도 여의치 않다. 권 진이가 가다 수녀는 “하루하루 주신 대로 살아간다. 나누면 나누는 만큼 또 채워진다. 힘든 시기이지만 그래도 마음 따뜻한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이어 나갈 수 있었다.”고 한다. 요셉의 집은 차가운 길 위에서 잠을 청하고 오는 이들에게 온기를 나누는 밥 한 끼를 대접하기 위해 오늘도 희망의 불빛을 밝힌다. **☺**



※ QR코드로 요셉의집 활동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밀알회>는 대구대교구 공식 사회복지 후원회로 장애인, 노인, 아동, 여성, 노숙인 등 가난하고 소외된 이를 위한 복지 사업과 교구 소속 10개 법인의 100여 개 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정기 후원자 가입 문의:** 053)422-3411(내선1)

교황, 미얀마 쿠데타 발발 1주년 “미얀마를 외면해선 안 됩니다”

2022년 2월 2일 바티칸 뉴스 | 번역 박수현

프란치스코 교황이 2022년 2월 2일 바오로 6세 홀에서 열린 수요일 일반 알현을 통해 “피비린내 나는 미얀마의 폭력사태”를 외면해선 안 된다고 “국제사회가 관련 당사자들 간의 화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미얀마 주교단의 호소”를 재차 강조했다. 교황은 “많은 형제자매들의 고통을 우리가 외면해선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해 달라고 기도로 하느님께 간구합니다. 평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을 하느님께 의탁합니다.”

고통받는 미얀마 국민들

2021년 2월 1일 미얀마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이 이끄는 미얀마 군부 세력은 무력을 앞세워 아웅산 수찌가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을 와해시켰다. 군부는 아웅산 수찌를 가두고 NLD 관련 관리들을 억류했다. 군부가 집권한 후 40만 명 이상의 민간인이 고향을 떠나야 했고, 3만 명 이상이 인접국가로 망명을 신청했다. 게다가 미얀마 국민 2명 중 1명은 빈곤한 생활을 하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수백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필수 식품 가격이 상승했으며 국가 통화는 폭락했다. 국제 아동구조 비정부기구 ‘세이브더칠드런(Save the Children)’에 따르면, 최소 15만 명의 어린이가 집을 떠나야 했다. 의료나 교육 서비스가 무너지면서 대부분의 학교는 문을 닫았다. 쿠데타 발발 1주년을 맞아 전국적인 항의시위와 파업이 벌어졌지만, 당국은 시위나 파업에 동참하면 반역죄로 기소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지난 1년 동안 장기간에 걸친 시위를 진압하면서 약 1500명의 민간인이 숨지고 1만 1000명 이상이 체포됐다.

주교단의 호소

교황은 수요일 일반 알현에서 미얀마 주교단의 호소를 언급했다. 지난 1월 미얀마 주교회의는 고통받는 사람들과 실항민들을 위해 인도적 접근이 용이해질 수 있도록 요청한 바 있다. 미얀마 주교단의 성명서는 지난 1월 11일에서 14일까지 양곤에서 개최된 연례 총회 이후 나왔다.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권은 침해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 장소, 병원, 학교의 거룩함과 생명에 대한 존중을 요구합니다. 사람들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든 사람들은 보호되고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명서는 “국가의 현 상황에 깊은 슬픔을 느낀다.”라며 “인종이나 종교적 신념에 관계없이 피해 지역의 무고한 사람들, 특히 실항민, 어린이, 여성, 노인과 병자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매우 높은 위협에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현재 미얀마에서 “수천 명이 피난 중이고 수백만 명이 굶주리고 있다.”라고 전했다.

“미얀마 전체가 전쟁터입니다”

양곤대교구장 찰스 마웅 보(Charles Maung Bo) 추기경은 지난 2월 1일 미얀마 쿠데타 발발 1주년을 맞아 「바티칸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얀마 국민들이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며, 군사적 탄압은 “장기적인 십자가의 길”이라고 한탄했다. “에덴 동산이 골고타 언덕이 되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는 미얀마가 “불안정한 정국 상황에서 혼돈, 혼란, 갈등 그리고 인간적 고통”의 한 국면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얀마 사람들이 공포와 불안, 굶주림 속에서 살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얀마 전체가 전쟁터입니다.”

1801년 충청도 홍주에서 태어난 이성례(李聖禮) 마리아는 내포 지역의 사도 이존창 루도비코 곤자가의 집안사람이었다.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남성처럼 씩씩한 정신을 지녔던 그녀는 17세 때 성 최경환 프란치스코와 혼인하여 홍주 다락골의 새터(현 충남 청양군 화성면 농암리)에서 살면서 1821년에 장남 최양업 토마스를 낳았다.

마리아는 언제나 집안일을 지혜롭게 꾸려나갔고, 일가친척들이 불화 없이 지내도록 하는 데 노력하였다. 또 나이가 어린 남편을 공경하고 그의 말에 순종하면서 가정을 화목하게 이끌어나갔다.

1839년 기해박해가 일어난 뒤, 남편 최경환이 한양을 오가면서 순교자들의 시신을 찾아 물어주고 교우들을 돌보자, 마리아는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면서 자식들을 보살폈다. 그러던 중 포졸들이 마침내 수리산 교우촌으로 들이닥쳤다. 이때 그녀는 음식을 준비해서 포졸들을 대접한 다음, 남편 일행의 뒤를 따라 어린 자식들과 함께 한양으로 향하였다.

포도청으로 압송된 마리아는 다음날부터 문초와 형벌을 받아 팔이 부러지고 살이 너털너털하게 찢어졌으나 용감하게 신앙을 증거하였다. 마리아는 이러한 육체적인 고통보다 갖난아기에 대한 모성에 때문에 더 큰 고통을 느껴야만 하였다. 남편이 매를 맞다가 순교하고, 한 살밖에 안된 스테파노가 더러운 감옥 바닥에서 굶어 죽어 가는 것을 바라보고 있어야만 했던 그녀는 마음이 흔들려 결국 석방되어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러나 장남 최양업이 신학생으로 선발되어 중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다시 체포되어 형조로 압송되었다. 형조에 이르자, 이성례 마리아는 용감한 신자들의 권면으로 큰 용기를 얻게 되었다. 이제 그녀는 이전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쳤고, 재판관 앞으로 나가 전에 한 말을 용감하게 취소하였다. 또 모성애를 비롯하여 모든 유혹을 용감히 이겨냈으며, 막내아들을 하느님께 바친 것을 기뻐하였다. 마리아는 관례대로 마지막 문초와 형벌 끝에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런 다음 감옥으로 찾아온 자식들에게 “형장에는 오지 말라.”라고 당부하고 자식들에게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겼다.

“이제는 다들 가거라. 절대로 천주와 성모 마리아를 잊지 말아라. 서로 화목하게 살며,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서로 떨어지지 말고 말형 토마스가 돌아오기를 기다려라.”

1840년 1월 31일(음력 1839년 12월 27일), 마리아는 동료 신자 6명과 함께 형장으로 정해진 당고개(현 서울 용산구 원효로 2가)로 끌려나가 참수형을 받아 순교하였으니, 당시 그녀의 나이는 39세였다. 순교 당시까지 그녀는 안온하고 평화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성례 마리아
(1801-1840년)

46. 혼인의 사랑 ⑮

감정과 본능에 대한 훈육이 필요하며, 여기에는 때때로 제한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인간은 열정으로 아름다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열정은 헌신과 온전한 자아실현을 향하여 더욱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 오히려 그 기쁨을 받아들이면서 관대한 헌신, 인내심 있는 기다림, 어쩔 수 없는 피로, 이상을 추구하기 위한 노력의 순간들과 함께 어우러지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편협한 경험에 갇혀 있지 않으려는 의식의 확장은 욕망을 거부하거나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넓히고 완성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기쁨』 148-149항)



공동의 집, 지구

신청: 2.13.(일) ~ 22.(화)

주제: 공동의 집, 지구 - 교황회칙 「찬미받으소서」로 살기Ⅱ -

가격: 1,500원 / 신청방법: 각 본당 별 신청(본당 사무실 문의)

문의: 교구 가정복음화국, 053)250-3077, 3114

※ 사순시기부터 사용하실 경우에는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구 가정복음화국에서는 실생활에 더 유익한 내용을 담아 **공동의 집, 지구 - 교황회칙 「찬미받으소서」로 살기Ⅱ** - 를 새롭게 제작하였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함께 가자, 생명의 길로! - 말씀과 함께하는 생태발자국 줄이기

단식을 통해 절약한 것으로 자선 실천해보기

교구 평신도위원회 & 생태환경위원회 제공

말씀의 해 안내지 57호 정답

1. 너는 네가 만든 것들과 네 보화에 의지하였기 때문, 크모스 신 2. ④ 3. 망치, 무기 4. 3차례, 4,600명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박성규 엘리지오



미사 안내

경주지역 교정사목 후원미사	2월 14일(월) 10:00 황성성당	포항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2월 14일(월) 11:00 죽도성당
2대리구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2월 14일(월) 10:30 범어성당	김천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2월 17일(목) 10:00 평화성당
1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2월 14일(월) 11:00 계산성당	3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2월 19일(토) 11:00 월성성당
구미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2월 14일(월) 11:00 봉곡성당	미바회 월례미사	2월 19일(토) 11:00 성모당

성소 | 피정

천주의성요한의료봉사수도회 성소 모임

일시: 2.19(토) 14:00

장소: 서울 개화동 수도원

문의: (010)3800-1579

예수고난회 성소 모임

일시: 2.27(일) 11:00~16:00

장소: 서울 돈암동 수도원

문의: (010)6804-4904

한국외방선교회 성소 모임

대상: 해외선교사제를 꿈꾸는 청년

문의: 성소국장, (010)8715-2846

대구가르멜여자수도원 성소 상담

대상: 20~30대 성소에 관심 있는 분

상담: 필요시 언제나 방문 가능

문의: (010)3375-4408

carmeldg@hanmail.net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

1박 2일: 3.5~6 / 4.30~5.1

3박 4일: 2.24~27 / 3.24~27

8박 9일: 3.11~19

장소: 문산예수마음피정의집

신청: (010)4906-5722 / (031)953-6932

호소 단식 힐링 피정

기간: 2.17(목)~20(일), 24(목)~27(일)

참가비: 25만원(호소포함) / 정원: 11명

지도: 문봉한 신부(성모솔숲마을원장)

면담 및 영성상담 가능

문의: (054)373-3955 / (010)5878-9922

교육 | 모집 | 기타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자원봉사자 모집

분야: 진료안내, 공급실, 기타

대상: 만65세 이하 건강한 남·여

(비신자 포함)

담당: 류요한 신부

문의: 650-4442 / (010)6565-6672

제대꽃꽂이 봉사자를 위한 아카데미

제13기생 모집

마감: 2월말까지

문의: 전례꽃꽂이연구회, (010)2509-9748

가톨릭고리신학원 통신과정 추가모집

내용: 가톨릭 신학 26과목

대상: 평신도, 수도자

마감: 3.31(목)

문의: (02)745-8339

http://ci.catholic.ac.kr

그리스도의교육수녀회 모세오경 통독

일시: 3.3(매주 목) 19:30, 온오프 병행

대상: 청년

문의: (010)9861-6691

제주교구 운전기사사도회 제주도 관광

가족, 단체, 골프수송, 관광 및 성지

안내차량, 호텔, 펜션 예약가능

문의: (064)758-6476 / (010)4566-6476

전인병원 건강보험검진

위·대장 내시경 검사에서 결과까지

당일 확인 가능합니다.

문의: 670-5959

대구파티마병원 기증제대혈은행

제대혈기증은 가장 효과적이고

가치있는 사랑의 선택입니다.

문의: 959-8883 / 940-7126

http://cord.fatima.or.kr

늘시원한 위대항병원
대장항문 세부 전문의 / 원장 노성균 아우구스티노

치질/내시경(위·대장) 건강검진

산격시장앞 ☎ 053-959-7175
010-9597-7175

보건복지부 지정
척추전문병원

척추·어깨·무릎
참조은병원

원장 배광주(레오) 원장 송대흠(요한)
T. 630-8000 송현역 2번 출구

U&I

유엔아이 결혼정보

053)795-2211 · 010-6572-2233

신매역 5번 출구 (사립 방향 500m)
제일병원 옆
김경임 (아네스)

KGB 포장이사서비스

꼼꼼히 딱 하루 한집만!!
내 집처럼

무료전화 080-053-1000
김진수(마르티노) 010-7484-3355

영원한 생명으로 찾아가는 길
수성성당 연도실

기도와 실비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T. 010-3530-7700
010-3817-0111

양호진 요셉, 장효선 테오라

척추·관절 및 뇌·신경 클리닉
백 신경외과 의원

뇌졸중, 두통, 어지럼증, 손발저림, 전전, 오통
좌골신경통, 목·허리 디스크, 골다공증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스, 오십견, 근·골격계 질환

원장 백운일(스테파노), 서영준(안드레아)
성당시장내거리 ☎ 053)628-4111

재활정형 전인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입구 1688-7667

연인원 팀장
★ 임철매트충만 ★ 최현희의류기 온수매트
소름덜자속기 게르마늄옥매트 대구충관

파크골프

초보자 모집, 레슨 / 골프채세트 - 교우특별할인

(주)매일프라자
김홍은(요셉) 010-9804-8008
유동탄지로 45 전차량 ☎ 2390

행사 | 모임

청년청소년국 말씀과 함께 심 피정

일자: 3.5(토)~6(일)
 장소: 사수동 포교 베네딕도 수녀원
 대상: 심이 필요한 청년
 마감: 2.20(주일) / 신청비: 3만원
 문의: 교구 청년청소년국, 264-2030

임산부 축복 교실

일자: 3.17~31(매주 목, 3주) 19:00
 장소: 교구청 별관 대화합실
 대상: 임산부 / 선착순 20명
 마감: 3.7(월) / 회비: 3만원
 문의: 가정복음화국, 250-3077,3114

교육 | 모집

2022학년도 예비신학생 모집

기간: 2.6(일)~20(일)까지
 대상: 중1~고3대학일반 / 등록비: 2만원
 문의: 본당사무실(매년 갱신 필수, 입사반은 1년간 개근해야만 대신학교 지원 가능)
 개학 미사: 3.13(일) 14:00 신학교 대성당

가톨릭신학원 수강생 모집

예언서, 요한계시록, 신론 등 다양한 강좌가 준비되어 있으며, 성경과 신학에 관심 있으신 모든 분들께 열려 있습니다.
 개강: 3.2(수) / 문의: 660-5105

바오로딸 영성 프로그램

바오로딸 성경학교: 모세오경
 기간: 2.23~5.25(매주 수) 13주간
 강사: 윤일마 수녀
 내영혼의글쓰기: 3.10(매주 목 14:00, 8주)
 신청: 바오로딸, (010)6681-5185

제33기 가톨릭음악원 연구생 모집

개강: 3.5(토) 10:00
 문의: 255-4847

가톨릭여성교육관 강좌 모집

이론화, 사범꽃꽂이, 칼림바, 발성법, 스마트폰으로 배우는 사진수업, 난타, 제대꽃꽂이, 고전무용, 사군자문인화, 캘리그래피, 우쿨렐레, 연필초상화, 정리수납전문가 / 신청: 254-6115

장례지도사 국가자격 취득반 모집

개강: 3.4(금) 등록 접수 중
 시간: 금 18:30~22:20
 토·일 13:30~21:50
 자격: 19세 이상 누구나
 문의: 대가대장례교육원, (010)2754-4404

대구베네딕도성경학교 수강생 모집

개강일: 일반_3.2(수),8(화)/심화_3.7(월)
 일반: 모세오경 (수)10:00, (화)19:30
 심화: 복음서의 예수님 (월) 10:00, 19:30
 장소: 내곡로 123. 편입, 비대면 수업가능
 문의: (010)7185-3431 / (010)9809-3431

전례생활연구회 전례 공부 모임

일자: 2.14(월) 19:30
 장소: 성요셉성당
 (월춘역 1번 출구 부근 위치)
 주제: 미사통상문 이해(교재있음)

2022년 거자씨성서모임 신입생 모집

개강: 3.2(수)
 구약반: (수)10:00, (월)20:00
 신약반: (화)10:00, (화)20:00
 심화반: (수)10:00, (월)20:00
 문의: (010)4106-4627 / (010)7520-4627

채용 | 안내

천주성삼병원 간호사 채용

위치: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3190
 문의: 간호부, 790-0867(신매동)
<http://www.sungsam21.com>

대구가톨릭대병원 장례식장

리모델링 공사 안내

기간: 2022년 상반기(임시 영업 중단)
 새롭게 단장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2022년 대구주보 광고 추가 접수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교적 증명서, 본당 신부님 추천서
 접수: 교구 문화홍보국, 250-3048

잘보는 안과
 DAEGU PREMIER EYE CENTER
 문홍재(오한) · 이정호 · 김인혜
 이태윤(미카엘) · 김진선 · 구병영
 호성병원 맞은편
잘보는안과 빌딩
 ☎ 053 766 4455

난창·이명은
밝은귀보청기 & 청각재활센터
 대학병원급 최신 검사 및 피팅 장비 보유
 대구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 석사/청능사
 최준우 (미카엘)
 봉덕점 · 서문시장점 010-6481-8848

가톨릭피부과의원
 Catholic Dermatology Clinic
 58년 역사와 전통의 피부질환 전문병원
 | 신축건물 이전 및 레이저 전문 진료과장 초빙 |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로15길 28
 대표전화 ☎ 053) 320-2000

코리아알트만
 39년 전통
결혼정보회사
 미혼 남녀의 결혼을 상담합니다.
 대표 박복순(오틸리아)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 254 (2층)
T. 053-743-4488
M. 010-3530-7467

“하지정맥류만을 위한”
이연재 맥 의원
 원장: 이연재(에릭)
 흉부외과 전문의, 의학박사
 대한정맥학회 이사
652-9777 www.meckclinic.com
 서부정류장에서 남대구 IC방향 200m

포장이사는
천사익스프레스
 전국대표전화
1644-2455
 김태기(안토니오)

목,허리,어깨,무릎 통증치료전문
서울에이스통증의학과
 도수치료 / 체외충격파 치료 전문
 (최신 체외충격파 치료기 도입)
 목 / 허리통증 / 오십견 / 무릎관절염 / 스포츠 손상
 원장 권 일 처(안드레아)
 진료과목: 통증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동구 야영로 46 (신암동 214-4) 2층 Tel 053-954-7582

이시아요양병원
 대구시 동구 파계로6길 16(지모동)
 (파군재 삼거리 좌회전 100m)
(053)983-7700
 병 원 장 이 동 구 (마티아)